

가고시마현청 다언어 정보지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VOL.165

1 최신 정보

문화유산×소주×재즈 「소주 익스피리언스」 개최 (12 월 25 일, 26 일)

2 국제교류원 칼럼

그곳에는 아름답고 신성한 대자연이 있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김 효 진 (한국 출신)

* 편집 후기

최신 정보 - Latest Updates

●문화유산×소주×재즈 「소주 익스피리언스」 개최 (12 월 25 일, 26 일)●

약 350 년 전에 만들어진 일본을 대표하는 다이묘(헤이안 시대에 등장하여 19 세기 말까지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했던 유력자) 정원인 가고시마시의 「센간엔(仙巖園)」과 「이시바시 기념공원(石橋記念公園)」에서 본격 소주와 요리, 그리고 음악을 즐기는 2 시간의 「소주 익스피리언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소주는 가고시마현 주조 조합에 가입한 112 개 주조장의 다양한 브랜드의 소주로, 소다 와리(탄산수를 타서 묽게 함)와 홍차 와리(홍차를 타서 묽게 함)도 제공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내외의 저명한 재즈 뮤지션들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가고시마의 요리를 즐겼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신성한 대자연이 있다.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김 효 진 (한국 출신)

영화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의 배경으로 알려진 야쿠시마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을 비롯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장소일 것입니다.

저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으로 야쿠시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야쿠시마를 여행하는 외국인 등산가의 이야기로, 당시 야쿠시마의 웅장한 자연과 이끼로 뒤덮인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치가 인상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국제교류원으로서 가고시마에 오게 되었고,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야쿠시마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출 자제 요청이 내려지며 아쉽게도 매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 되고 나서야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야쿠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본 칼럼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고시마현 국제교류과에서는 본 현의 최신 정보 및 관광 정보 등을 여러 언어로 제공하는 「가고시마현청 다언어 정보지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고시마현에 재직 중인 각국 국제교류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가고시마현의 매력과 이곳에서의 체험기 등을 작성한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일환으로 취재차 야쿠시마에 다녀온 것입니다.

취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국제교류원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1 일차】

드디어 출발~!

저희는 아침 7시 반에 출발하는 고속선을 타고 야쿠시마로 향했습니다. 출발 전부터 「파도가 높은 날에는 배가 엄청 흔들려요」라고 여러 차례 들었지만, 지금까지 배를 타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저로서는 자신이 뱃멀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 채 배에 올라탄 것이죠.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걱정하던 뱃멀미도 나지 않자 여유롭게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한 탓일까요? 갑자기 두통과 현기증이 나더니 속이 메스꺼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 시간 반 정도가 흘러 저희를 실은 고속선은 야쿠시마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뱃멀미는 도착과 함께 가라앉았죠. 저희는 야쿠시마의 신선한 공기로 기분 전환을 한 후에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 취재는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야쿠시마 사무소의 현 직원인 다나카 주간과 요네하라 주사가 미야노우라항에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 야쿠스기 자연관

야쿠시마와 야쿠스기(야쿠시마의 산지에 자생하는 삼나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먼저 이곳으로 오세요!

이곳에는 조몬스기(縄文杉) 및 기겐스기(紀元杉) 등 야쿠스기의 가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야쿠스기의 압도적인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야쿠시마의 지도 및 지형 모형, 지질과 암석에 대한 해설 패널이 전시되어 있으며, 또한, 직접 야쿠스기를 깎아서 향을 맡아 보거나 나이테로 야쿠스기의 나이를 알아 보는 등의 다양한 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야쿠시마가 처음인 분이라면 먼저 이곳에 들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야쿠스기랜드

흥미와 체력에 맞추어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야쿠스기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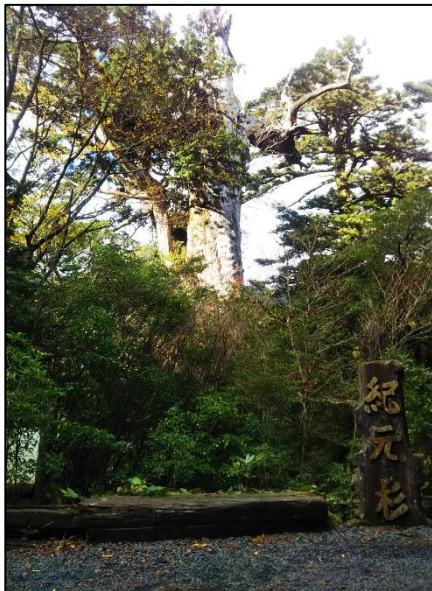
표고 1000~1300m 에 펼쳐진 숲에는 30 분, 50 분, 80 분, 150 분, 210 분의 5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80 분 코스를 산책했습니다. 사실 다음 날에 있을 시라타니운스이코 협곡의 등산을 앞두고 워밍업하는 기분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험준한 등산로였습니다. 저와 같이 등산 초보자인 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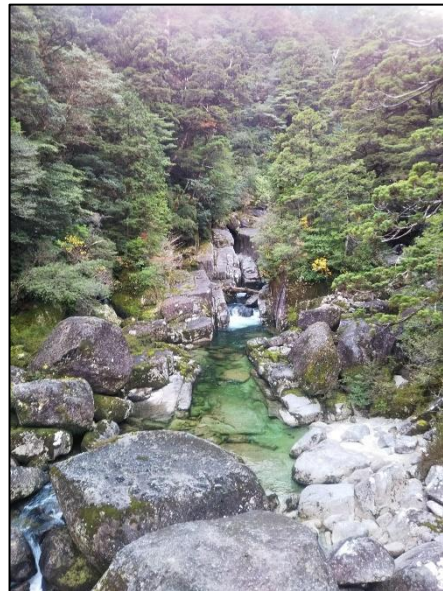
본 코스에서는 쉰센스기(千年杉), 붓다스기(仏陀杉), 구구리스기(くぐり杉) 등을 보았습니다.

붓다스기(仏陀杉)는 「샤카스기(釈迦杉·석가 삼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나무줄기에 생긴 혹이 부처의 얼굴을 연상하게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야쿠스기의 이름은 저마다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각의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특징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롯가에 있어 접근하기 용이한
기겐스기(紀元杉)



아름다운 계곡에서 사진 촬영!

【2 일차】

드디어 「시라타니운스이쿄 협곡」을 등산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아침 8 시에 호텔 앞에서 모여 평소 다나카 주간께서 자주 이용하는 도시락 가게에 들려 점심을 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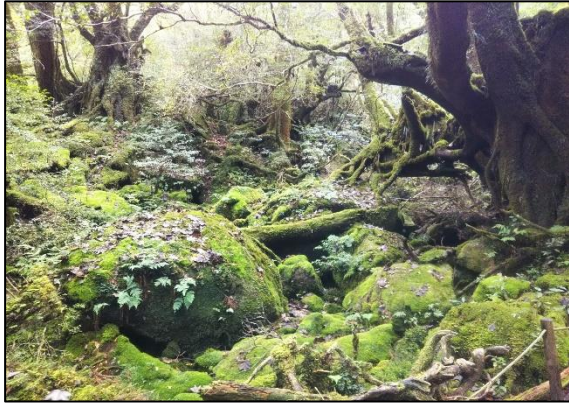
이번 코스는 약 4 시간이 소요되는 다이코이와 왕복 코스로, 저희는 아침 9 시경에 다이코이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 시라타니운스이쿄(白谷雲水峽) 협곡 「다이코이와(太鼓岩) 왕복 코스」

얼마간의 말끔하게 정비된 길을 지나니 이제껏 상상만 해 왔던 일들이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수년 전부터 야쿠시마의 사진과 영상을 보며 「정말 신비롭다! 실제로 봐도 이런 느낌일까? 혹시 보정한 사진 아니야?» 등의 상상만 했는데, 그것은 현실에 있는 절경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장 기대했던 장소는 「고케무스모리(이끼의 숲)」였습니다. 영화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의 배경으로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을 좋아하는 해외 팬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장소일 것입니다. 저도 「드디어 고케무스모리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만, 야쿠시마는 마치 보란 듯이 고케무스모리로 향하는 길목마다 자연이 만든 웅장하고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하였습니다. 지면에 뺨은 뿌리, 공동화(空洞化) 현상으로 인해 구멍이 난 밑동, 파배기처럼 꼬인 독특한 형태의 나무줄기, 그루터기 위에 새롭게 다시 삼나무가 돌아난 니다이스기(二代杉), 쓰러진 고목(土埋木) 등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답고 신성한 자연이 있었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고케무스모리



다이코이와에서 바라본 풍경

어느덧 다이코이와에 도착하였고,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에 그때까지의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원래 다이코이와는 구름이나 안개가 끼는 날이 많은데, 이날은 맑은 날씨 덕에 규슈 최고봉인 미야노우라다케를 비롯한 높은 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저와 같은 등산 초보자나 혹은 해외에서 방문한 분들은 산속에서 「히메샤라」라는 나무를 만나면 꼭 한번 안아 보시기 바랍니다. 매끈매끈한 촉감에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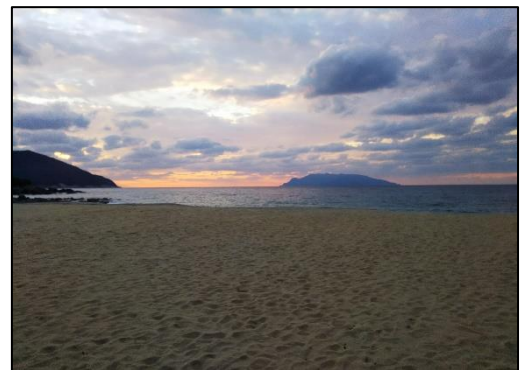


히메샤라

■ 나가타하마 해변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오후 1 시 무렵에는 다이코이와 왕복 코스의 등산을 마친 후, 차를 타고 야쿠시마를 일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등산 초보자에게는 무리였을까요? 하산하고 나니 시간은 벌써 오후 4 시였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러한 마음을 뒤로한 채 해 질 녘까지 드라이브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안 도로를 30 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에는 나가타하마 해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 최대의 바다거북 산란지로, 산란 기간은 5 월 상순부터 7 월 하순까지라고 합니다. 물론 이날은 바다거북의 산란을 볼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다시 방문할 날이 오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름다운 오렌지빛 석양

【3 일차】

근육통에 괴로워하며 3 일차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저하된 체력을 절감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날은 아침 8 시 반에 호텔 앞에서 모여 이번 여정의 마지막이 될 「스기노야」로 향했습니다.

■ 야쿠스기 공예 「스기노야」

「스기노야」는 야쿠스기의 공예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선인의 젓가락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인의 젓가락 만들기」 체험은 천 년의 야쿠스기를 직접 깎아도 보고 향도 맡아 보는 오감 만족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야쿠스기의 목재를 깎아서 모양을 잡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우즈쿠리를 사용해 윤을 냅니다. 우즈쿠리는 새(벚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를 묶어 놓은 것으로, 나무로 된 판자나 기둥 등의 딱딱하지 않은 부분의 윤을 낼 때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해 문지르다 보면 야쿠스기의 기름이 배어 나오며 윤이 납니다. 이것으로 완성입니다!

이렇게 야쿠스기의 촉감과 향을 느껴 봄으로써 전날 등산으로 인해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의 마지막에 「선인의 젓가락 만들기」를 체험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여행으로 지친 몸이 힐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야쿠 신사(益救神社)

【음식】

■ 날치 날다! 정식

재미있는 이름의 「날치 날다! 정식」은 가게의 대표 메뉴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이 정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는 일제히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치 날다! 정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치 날치가 날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께서 「이 날치 튀김은 지느러미까지 먹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셨지만,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는 날치 지느러미에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야쿠시마에 왔는데 이곳의 방법대로 먹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신중하게 맛을 보았죠.

과연 그 맛은...?

그렇습니다. 먹어 보길 잘했습니다! 바삭한 식감은 이제껏 먹어 본 적이 없는 최고의 튀김이었습니다!



■ 날치 히쓰마부시

히쓰마부시라고 하면 장어구이를 얹은 것이 보통입니다만, 저는 이번에 날치 히쓰마부시를 맛보았습니다. 평소 씹는 맛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날치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장어를 얹은 히쓰마부시보다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먹는
도시락의 맛은 가히 최고!



날치·젯방어·청새치



인정미 넘치는 푸짐한 돈가스덮밥

이번 취재는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취재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동행하며 안내를 해 주신 야쿠시마 사무소의 다나카 주간과 요네하라 주사, 운전기사님께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대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을 즐기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취재에 동행한 싱가포르 국제교류원의 칼럼은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